

◆교회목표◆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 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충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신성종 편집인:오태희 편집국장:조신근

예수사랑 큰잔치 기쁨과 감사로 마쳐

피초청자 54.4%가 결신, 양육에 신경 쓸 때



지난 주일 우리는 '93예수사랑 큰잔치를 열어 온 교회가 잔치분위기 속에서 보냈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금년도 예수사랑 큰잔치는 작년과는 또 다른 분위기와 마음가짐으로 알찬 결실이 있는 잔치가 되었다.

지난해의 경험을 살린 철저한 준비와 빈틈없는 진행,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으로 인해 글자 그대로 '큰잔치'를 생각케하는 날이었다. 새벽기도회부터 오후 7시의 저녁 예배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진 예배를 통해 초청자와 피초청자 모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감사와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김창인 원로목사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IV, VI부)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말씀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무거운 짐을 벗고 평안함을 누릴 것을 강조했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는 사도행전 16장 30, 31절을 본문으로 '주 예

수를 믿으면' (III, III, VI부)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주 예수를 믿을 때 진정한 용서와 참된 평안과 능력있는 삶이 가능함을 설명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오도록 초청했다.

이날 예배는 I ~ VII까지 총 21,337명이 참석하였는데 피초청자가 3,937명이었고 그 중에 결신자가 2,143명(54.4%)이 되어 지난해 결신을 22.7%(1,685명)를 배나 상회하는 높은 결신율을 얻었다.

7부에 걸쳐 예배가 드려지는 가운데 1부와 6, 7부를 제외하고는 본당이 좁을 정도로 가득 모여 예배를 드렸다. 특히 II부와 III부는 본당 2층 통로와 갈릴리홀, 나사렛홀까지 모였다.

금년도 예수사랑 큰잔치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통해 관심을 가지고 접촉해온 사람들을 초청하였기에, 교우들도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었고 피초청자도 복음을 받아들이 준비가 된 사람이 많았던 것 같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날에 얼마나 인도하여 왔는가 아니라 이제부터 이들을 어떻게 교육하여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으로 양육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는 새가족위원회를 신설, 이를 위

한 연구와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이번 기회에 결신한 사람들은 교구에서 일일이 심방하여 그들이 교회에 잘 출석할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을 하고 새가족위원회 양육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돌보는 일을 하게 된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들을 위해서 더욱 더 뜨거운 정성으로 기도하고 이들이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인도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들이 스스로 설때까지 늘 옆에서 보살피 주는 성숙한 성도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1994년도 계획과 준비 시작

각 위원회 별 계획 제출, 검토

교회는 1993년 하반기를 맞으며 내년도의 계획과 준비에 들어갔다. 이미 지난 8월 정기당회(9월 5일)에서는 1994년 계획과 준비 일정을 확정하였다.

계획과 준비 일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원로추대 및 장기근속자 포상자 선정, 둘째는 1994년도 사업계획 셋째는 1994년도 교회일꾼 선정이다. 원로추대 및 장기근속자 포상자는 해당자의 제출을 받아 인사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당회 승인을 거쳐 12월 26일(주일) 저녁예배시 원로 추대 및 포상식을 가질 계획이다.

1994년도 사업계획을 이미 지난 10월 17일까지 각 위원회 별로 제출받아 기획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다.

1994년도 교회일꾼 선정은 11월 7일에 위원장 및 부장급 임명 및 교역자를 임명하고 산하 부서장은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12월 5일 정기당회에서 임명할 계획이다. 또한

서리집사와 권찰은 후보자를 10월 31일까지 제출받아 인사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후보자 교육을 실시한 후 12월 12일 주일 예배시간에 제직과 교구일꾼을, 12월 19일에 교사와 찬양대원을 임명할 예정이다. 또한 한 해를 결산하는 각 부서 총회도 12월 19일(주일)에 교구위원회, 찬양위원회, 전도위원회 총회를 12월 26일(주일)에는 교육위원회 총회와 안수집사회, 권사회 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리고 12월 26일(주일)에는 결산·예산 특별 제직회를 한 후 신년 1월 2일(주일)에 결산·예산 공동의회를 열어 모든 연말 일정을 마치게 된다.

이제 모든 책임 맡은 사람들은 1993년도를 잘 마무리 하겠다는 마음으로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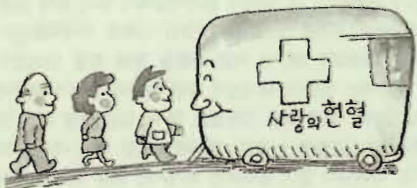
제2회 장애인복음화대회

장애인 복음화대회가 지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본당에서 모였다.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모두 1,000여명이 모여 대회를 가졌는데 오전과 저녁시간은 당회장 신성종 목사를 주 강사로 한 부흥집회로, 오후에는 특별활동 시간 등을 통해 장애인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시간들을 가졌다. 특히 둘째날인 20일 오후에는 참석자 전원이 역삼지하철역에서 신촌 쪽과 을지로 쪽으로 나누어 노방전도와 장애인을 계몽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현혈할 수 있는 건강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현혈에 동참합시다.

오늘,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본당 앞 광장에서



교회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랑의 실천운동본부 주관하는 사랑의 현혈운동을 실시한다. 이처럼 현혈하는 기회를 통하여 모든 교우들은 무엇보다도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여, 수혈

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도를 몸소 실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

문은 소경을 고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두 소경을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똑같은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10장 46절이나 누가복음 18장 35절을 보면 디매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매오를 고쳐주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공관복음과 마태복음 사이에 기록의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의 초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마가복음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바디매오라는 인물에 초점을 두고 있고 마태복음은 숫자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능력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할 때는 공관복음을 비교해가면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1. 소경과 죄인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두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경과 죄인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을 시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경이나 죄인에게는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둘 다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소경이요 거지인 바디매오란 그 말대로 소경들의 특징은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일할 적당한 직장이 없습니다. 혹 있다 할지라도 몸이 건강한 사람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소경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구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차츰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서 맹인에게 특별한 기술을 가르칩니다. 안마사 자격증도 그 일부입니다. 그러나 인권도, 사회적인 복지도 없는 2000년 전에는 소경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빈곤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빈곤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하니까 글을 읽을 수가 없고 따라서 책 속에 있는 심오한 진리를 터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다른 사람들처럼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소경들을 부정당해서 죄인시 하고 격리시켰습니다.

2. 예기치 않은 곳에서 믿음을 발견함

본문에 보니까 바디매오라는 소경과 그의 친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강한 믿음을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본문의 두 소경이 그 예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길가에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라는 간절한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또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타나리라는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보통 사람들처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를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단순한 신앙을 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언약의 주인공,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모든 기회를 선용해야 함

이들은 눈을 뜨기 위해 기회를 잘 이용했습니다. 사람에게 는 누구에게나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은혜받을 수 있는 기회, 배울 수 있는 기회,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 행복해 질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칩니다. 때때로 한 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길가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길가에 앉

아 있으면 틀림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길가에 앉은 것은 차를 기다리기 위함도, 사람을 만나기 위함도 아니고 바로 그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기다렸습니다. 은혜의 수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중헌장단



두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

(마 20:29-34)



신성종

<목사·당회장>

것입니다. 두 소경이 사용한 마지막 무기는 예수님께 소리지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리지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부트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 괴로운 일,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실 줄로 믿고 부르짖으십시오. 새벽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4. 노력과 인내가 필요함

두 소경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고 비난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누가 그렇게 욕을 하고 비난하고 꾸짖으면 창피해서 거만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항했습니다. 이것이 일생에 있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는 눈을 뜨게 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너 부르짖어 가로되"라고 했습니다. 야깁도 부르짖었지만 잠잠하라고 하니 더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 정도의 배짱은 있어야 합니다. 압박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의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나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천사를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릴 적도를 시작했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주실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찾는 데 있어서 노력과 인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

를 찾는 데 노력과 인내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말 은혜받기를 원한다면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리들이 이들을 향해 잠잠하라고 했을 때 주님은 모른 채 했습니다. 그들이 더 소리를 질러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 채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되어야 하는 것인지 주님이 알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때까지 계속 매달리면 "반드시 곧 보게 되리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안수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시면서 '소자야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해주마. 내가 너를 보게 해주마. 내가 너를 도

와주리라'는 말씀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도디어 그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소경들이 고침을 받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예수를 좇으니라"고 했습니다.

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은혜받고 고침 받은 후에는 예수를 좇아야 합니다. 그들의 가던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서 왔습니다. 다시 여리고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리고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 예수님을 좇아왔습니다. 삶의 방향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삶의 방향을 바꿔 예수님만을 좇아야 합니다.

5.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째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맹인이 있음을 시사해줍니다. 육적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습니다. 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문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맹인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영맹이라고 부르는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주셨습니다. 영적 세계는 영적인 눈을 떠야 보게 됩니다. "어찌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눅 24:45)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성경을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성경을 깨닫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곁에 계신 주님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환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의 질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구원과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과 축복의 기회만은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은 우리가 움켜쥐어야 합니다. 셋째는, 두 소경의 경우처럼 주님이 금방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안내하면서 계속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결국 주님은 큰 축복으로 응답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훈을 생각하면서 눈을 뜬 두 소경처럼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술과 기도



침술은 오랜 역사를 가진 혈을 통하게 해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었다. 필자는 어려서부터 침을 두서 치료했는데 그 이유는 잘못될 때마다 너 침 준다 하면서 아픈 곳을 맞았기 때문이다. 또 어려서 할아버지께서 몸과 함께 굳은 침을 맞고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것이 너무도 무서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최근에 어떤 사람을 통해 침을 맞아보았다. 그 치료하는 방법에 하나님의 자연 치유와 통하기 때문에 시도해보았는데,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함을 느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과 영이 통하려면 회개라는 침을 맞으면 되기 때문이다. 막혔던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뚫려지면서 영적으로 맑아지는 것이다.

글 / 신성종 목사

93 예수사랑큰잔치

1993.10.17

충한교회당



▲ 교회당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교우들과 피초청자들. 모든 교우들이 열심으로 참가하여 3,000여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나왔다.
▲ 예배시간 전후하여 본당 앞 계단에서 율동과 복음성가로 새로오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교회학교 SingAlong팀 (우측)

93

예수사랑 큰잔치 사진전



▶ 본당을 가득 차고도 모자라 2층 계단과 1층 입구에도 보조의자를 놓고 앉았다. 갈릴리홀과 베다니홀에도 가득 찬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 ▮부 예배광경.



▶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참살떡을 선물로 주었다. 잔치 분위기를 한껏 도운 선물이었다.
◀ 새로 온 사람들이 교구별 만남의 장소에서 교구 안내원의 인도에 따라 접수하고 있다. 각 교구에서는 자체 계획을 짜서 새신자들의 수송문제를 해결했다.
▼ 설교후 설교자의 결신초청에 따라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며 일어난 사람들. 이날 결신율은 50%를 상회했다. (우측)
▼ 결신 초청 시간에 찬양으로 결신자들의 마음을 재촉한 중창팀. 부목사들로 구성된 중창팀은 ▮부에서 ▮부까지 이 시간을 담당했다.



예수사랑 큰잔치 이모저모

◆ 10월 17일 예수사랑 큰잔치는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준비되었다. 그 전날인 토요일 오후에 이미 본당 앞 광장 만남 장소의 모든 천막이 준비되었고 선물로 줄 찻쌀떡도 준비되었다. 모든 준비를 끝내고 잔치 당일날을 기다리는 설렘만이 출렁이고 있었다. 토요일 저녁부터 비가 뿌리고 심한 바람이 불어 준비한 사람들은 마음을 졸였지만 부슬비가 조금 오다 말았기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어서 안도의 숨을 쉬기도.

◆ 당일, II부 예배부터 사람들이 밀려 닥쳤다. II부 예배는 본당 아래 뒷층을 가득메우고 2층에는 통로에 앉기도 했다. 그래도 모자라 늦게 온 사람들은 갈릴리홀로 가서 예배를 드렸다. III부 예배는 아예 초만원. 이미 예배시작전 본당 아래 뒷층이 가득차서 시작이후에 온 사람들은 갈릴리홀과 베다니홀로 몰렸지만 여기도 초만원이었다. 그러나 모두가 질서있게 행동해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 갈릴리홀과 베다니홀에서는 헌금시간 후에 온 사람들은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 헌금위원들이 준비한 헌금주머니에 헌금을 하고 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

◆ 지난해와 달리 예배시간에 세심한 배려가 눈에 띄었다. 전교인, 전 가족이 한자리에서 예배함에 따라 어린이들의 소란함이 걱정되었으나 어린이들이 떠들라치면 안내위원들이 재빨리 뛰어와 불룩한 주머니에서 꼬다리가 달린 사탕을 쥐어주어 보는 사람, 아이들의 부모, 주는 사람 모두가 흐뭇한 미소를

머금게 했다.

◆ 주일이면 하루종일 활발한 발걸음과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들락날락하던 교육관이 이 날은 아예 창문이 닫힌채 적막한 가운데 있어 본당을 중심으로 통성합과는 꺾이나 대조적이었다. 온 교회학교도 총동원되어 예배에 참석하여 교회학교 모두가 모이지 않았기 때문. 온 가족이 총동원하여 다 함께 예배드리는 날로도 이날은 의미가 있었다. 영아, 유치, 초등부 어린이들은 부모를 따라 함께 주일예배에 참석. 그들에게는 참으로 신기한 경험이 되었음직도 하다.

◆ 이날의 최고인기는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준 찻쌀떡.. 특별주문하여 최고의 솜씨로 만들고 5개들이 포장까지 한 이 덕때문에 많은 후문들. 탄 사람이 또 타고 가는 모습들을 보며 여러가지를 생각해 했지만 잔치집은 으레히 그런 면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별일 아닌듯. 꼬마들은 그야말로 '웬떡이냐' 하며 싱글병글.

◆ 교회로서는 전 교인이 동원된 가장 큰 행사로 예배안내 위원만도 100여명이 넘게 동원되었고, 새신자 접수, 특순 등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전 제직이 동원되다시피해서 착오없이, 불편없이 잘 치워낸 잔치였다.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느라 애쓰는 것을 보면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총현 교회의 저력이라는 것을 느끼게 했다. 특히 밖에서 새신자 접수를 한 각 교구의 일꾼들, 전철역 주변에서 길안내를 한 사람들, 하루종일 밀려닥친 차량들을 정리하느라 애쓴 봉사요원들은 바람불어 추운 날도 아랑곳 없이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다함께 기도합시다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소서.
· 김창인 목사님 : 25일(월) 제4회 한국기독교 선교 대상 시상식 축도, 26일(화) - 27일(수) 시흥 성암교회 부흥회 인도
· 신성중 목사님 : 25일(월) 목회자 세미나 강의, 25일(월) - 26일(화) '93목회자 선교각성대회 강의(광림수도원), 29일(금) 크로스웨이 강의
2. 사회 곳곳에 만연된 불의가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3. 예수사랑 큰잔치에 참여한 새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내려주소서.
4. 결심한 새가족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잘 돌아보는 구역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5. 입시생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건강을 더해 주셔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소서.

마냥 즐거운 표정.

◆ 이번 기회에 새로 조직된 남성 중창단이 단연 돋보였다. 설교후 결심 초청시간에 찬양으로 결심자의 마음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던 새로 구성된 중창단은 바로 부목사들로 구성된 팀이었다. II부에서 VI부까지 순서를 맡았던 이 중창팀을 보고 사람들은 '어디서 초청해 왔지' 라는 사람도 있었다고.

◆ 또한 예배시간 전후 본당 앞 계단에서 찬양하고 울동하며 사람들을 맞고, 환송하던 교회학교 SING ALONG 팀들로 이날의 잔치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었고 살아났다는 이

야기들.

◆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 II, III, IV부 예배시간에 갈릴리홀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직들이나 교인들이 예배시간 전에 갈릴리홀이나 베다니홀을 채우고 본당을 비워주어, 새로운 사람들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면 좋았겠다는 후문들이 무성. 사실 본당에서 직접 눈으로 보며 예배를 드리는 것과 비디오크로 보며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많아 다음 기회에는 생각해 볼 일. <형>

◆ 예수사랑 큰잔치를 마치면서 ◆

중은 무익한 종입니다

정 광 욱

(목사, 13교구, 중동3부지도)

◆ 예수사랑 큰잔치를 마치면서 ◆

우리의 열심이 확장 되었으면

김 양 흡

(목사, 22교구, 선교위원회지도)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 할지니라" (눅 17:10)

할렐루야! 그동안 밤잠을 자지 못하며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던 '93 예수사랑 큰잔치가 지난주에 실시되었다. 모든 행사를 마친 후 뒤를 돌아볼 때 지난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위의 말씀을 기억한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 우리는 다 무능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무익한 종들이다. 이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린다. 무익한 사람이 이번 예수사랑 큰잔치에 기획분과의 서기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아 일을 수행하면서 배운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나신다는 점이었다. 이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늘 느끼는 것은 우리의 부족이요 우리의 부족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이다 이루어지지 못하는 면들을 아쉬워할 뿐이다.

이번 큰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첫째, 놀라운 결심율이다. 이번 큰잔치에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하여 초청한 분들은 모두 4000명 정도이다. 가까이는 역삼동 열집에서 멀리는 인천과 안산에서 구름떼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며 특히 3부 예배에는 7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본예배실은 물론 갈릴리홀과 베다니홀을 채웠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중요한 사실은 이분들 가운데 50퍼센트가 훨씬 넘는 2143명이 당회

장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말씀과 결단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단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총동원 행사를 진행할 때 초청자들의 결심률을 10%로 잡는데 비하면 50%가 넘는 결심률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또 우리 성도들이 초청 대상자를 얼마나 신중하게 선정하였으며 그분들이 결심하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땀'을 들였는지를 보여준다.

둘째는 성도들이 자신의 교구 지역에 속한 사람들을 많이 초청하였다는 점이다. 결심자들 가운데는 초청한 기존 성도들과 같은 지역에 속하는 분들이 3/4에 가깝다. 이것은 아는 사람들, 대려오기 쉬운 사람들을 데려오는 흔히 말하는 '연고지 판매'가 아니라 이웃에 있는 분들을 초청하고 그들이 결심하게 하는데 애를 썼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초청 뿐 아니라 결심과 결심 이후의 양육까지 미리 계획한 초청이다. 이제 앞으로 결심자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이 남았는데 초청자와 결심자가 한 교구 이웃에 있다는 사실은 이들을 효율적으로 양육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미숙하였지만 주의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었다. 일을 하는 과정 중에서 실수한 점, 더 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점들은 아쉽고 송구스럽게 여기면서 이제 양육하는 일을 위해 온 힘을 다 기울이려고 한다.

예수사랑 큰잔치는 끝난 것이 아니다. 또 하나의 예수사랑 큰잔치의 시작이 있을 뿐이다.

성령님여, 우리의 부족을 도우소서!

두 번째 예수 사랑 큰 잔치를 마치고 돌이켜 생각하니 하나님께 감사할 일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잔치를 준비하면서 홍보분과를 맡아서 동분서주하며 지냈었는데 이번에도 홍보분과를 맡아서 일을 하게 되어 한 편으로는 경험이라는 이점과 다른 한 편으로는 두 번째이기에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함께 이번 잔치를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작년 보다는 더 나아야 한다는 부담감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잔치가 계속될 것임을 생각할 때 이번 잔치가 은혜 중에 잘 끝나야 다음에 더 잘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부담감은 더욱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염려는 묶어 놓고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고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잔치를 준비할 때는 축적된 경험은 없었으나 긴장감과 단결심으로 잘 준비되어졌었고 두번째로 이 잔치를 준비할 때는 축적된 경험으로 인해서 쉽게 치를 수 있었습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열심히 계획해서 홍보물을 만들어 놓으면 부지런히 전해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므로 인쇄물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볼 때였습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 교회와는 비교도 안되는 작은 교회에서도 수 만명을 전도하여 교회를 채운다고 하는데 우리는 더 좋은 조건 속에서도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좋은 환경도 사용하지 못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좋았던 것은 남편을 구원하여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구역예배, 금요집회, 기도회 집회등 모든 모임에 나올 때 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집사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붙잡고 예수 사랑 큰 잔치에 꼭 한 번만이라도 나오라고 애타는 마음으로 전도하시던 권사님, 당신이 맡은 지역이 이번 기회에 꼭 배가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며 지역의 일꾼들을 모아서 식사를 대접하며 일하시던 지역장장로님, 앞서가는 교구가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늘 염려하며 기도하므로 준비하시던 교구장 장로님,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가는줄 모르고 머리를 맞대고 준비하시던 목사님들, 조금 더 나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점검하시던 당회장 목사님, 모두를 생각할 때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의 단결된 모습을 발견하기에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모름지기 40년 동안 다져온 원로 김창인 목사님의 목회 훈련의 결정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열심이 내 가족, 내 지역, 내 민족, 내 나라에 그칠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향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확장된다면 더 나은 예수 사랑 큰 잔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것은 웬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주어진 기회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